



[산업]
SK이노
꿈의 배터리 개발 가속
800km 주행 전기차 눈앞
08

매일 아침 내 손 안의 친구
메트로 창간 20년
노인일자리 만들기와
정보나눔의 길을 계속 가겠습니다.



“행복한 요리 선사하는 ‘만인의 아지트’ 만들고파”



나라셀라·하루일과
이 차 리 총괄 주방장

이차리 나라셀라·하루일과 총괄 주방장의 하루는 '체크'에서 '체크'로 끝난다. 출근 후 밤새 주방의 문제는 없었는지, 입고된 식자재들과 준비해둔 식자재들은 신선한지, 요즘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에는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야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세프가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체를 보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불안 요소에 대해 주위를 한기할 안목이 필요하다.

이차리 세프는 “주방은 생각보다 위험하며 개인의 안전뿐만 아니라 식중독, 화재 등의 공공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라며 “그래서 제 일은 지시를 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체크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차리 세프는 어릴 때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시던 어머님을 도우며 자연스럽게 요리와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통해 제이미 올리버를 만난 후 요리의 꿈을 본격적으로 키우기 시작했다.

이 세프는 ▲2021 대한민국 철린지컵 국제도리 경연대회 심사위원 ▲2021 대한민국 철린지컵 국제도리 국가 대표 유럽인증 ▲2021 대한민국 철린지컵 코리아 국제도리 경연대회 라이브 부문 금상 ▲2021 제6회 대한민국 철린지컵 국제도리경연대회 라이브부분 금상 ▲2021 제6회 대한민국 철린지컵 국제도리경연대회 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상 등 다양한 경력과 수상 활동을 쌓아오고 있다.

이 세프는 “사실 주방은 화려한 음식 플레이팅 뒤에 숨겨진 지루한 싸움의 연속이다. 요리사란 직업은 정말 첫바퀴 굴리가듯이 일을 하게 된다. 메뉴가 정해지게 되면 한동안은 작업 리스트가 변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라며 “게다가 주방이라는 환경은 그야말로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이다. 마치 환경이 저에게 ‘지쳐라! 지쳐라!’라고 외치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지루함을 느끼고 고된 노동으로 번아웃(어떠한 활동이 끝난 후 심신이 지친 상태)이 오는 후배들을 많이 겪었다. 그래서 늘 새로움을 찾고 작은 것 하나도 변화를 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총괄 주방장이라는 자리는 항상 막막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차리 세프도 막막한 상황은 많지만 동료들과 서로 노력하고, 대화하며 조율해 가는 등 소통을 계울리하지 않는다.

그는 “총괄 주방장이란 자리는 밑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 해보지 않았던 일들에 대한 부담감, 해결 방법조차 모르는 일들이 부딪혀 온다. 처음에는 막막함도 많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차리 나라셀라·하루일과 총괄 주방장.

/손진영 기자

제이미 올리버 보며 요리의 꿈 키워
요리대회 수상 등 다양한 경력 쌓아

고된 노동에 번아웃 겪는 후배들도
동료들과 소통·조율하며 문제 해결

부담없이 찾는 편안한 공간 만들고파
새로움에 도전하는 행복한 요리사가 꿈



이차리 세프가 직접 만든 음식. /이차리 세프

친구 같은 편안하고 친근한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아지트 같은 느낌이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세프의 최종 목표는 거창하지 않다. 그저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감동이 자신을 계속 맞이해주길 바란다.

그는 “명예나 돈, 유명해지는 것도 좋지만 수많은 선배들이 지나왔던 과정과 미래 후배들의 중간에서 있는 나는 아직 내 요리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 중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언제쯤 요리사로서 이 목표를 도달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소박한 바람이라면 요리를 처음 시작했던 그때의 감동이 저를 계속 맞이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처럼 새로움에 도전하고 즐겁게 요리하는 행복한 요리사로 남는 게 꿈”이라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버스티비 YAP TV 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한국 축구대표팀, 아이슬란드 친선전
서 5-1 대승
▲ 서울 떠난 박주영, 스승 흥명보 품으
로…울산 입단

/사진 뉴시스

▲ 男프로배구, 외국인선수들 연달아 관
중석으로 ‘킥’ 비매너 논란
▲ 덴마크·네덜란드도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선언



▲ 김시우, PGA 투어 소니오픈 3R 공동
39위…선두와 11타 차
▲ ‘백신거부’ 조코비치, 호주오픈 참가
무산…비자 소송 패소

/사진 뉴시스